





# “해외서 한국 청년들 키워내 華僑·유대인 능가하는 네트워크 꿈꿔…

(화교)



김우중 회장이 23일 베트남 하노이의 한국계 정강 업체 하이비나를 찾아 공장 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김 회장은 이 업체에 취업해 근무 중인 글로벌 청년 사업가(YBM) 1기생 박준은(생산 기획 담당) 등 3명과도 만나 원담했다.

지난 24일 베트남 하노이 사범대학 외국인 학생들 강의동 707호실. 한국서 대학을 졸업한 뒤 글로벌 청년 사업가(YBM·영 비즈니스 매니저) 프로그램에 선발된 청년 39명 앞에 김우중 전 회장이 나타났다. 건강을 회복한 모습이였다. 청년들은 환호하며 노(老)멘토를 맞았고, 김 회장은 1시간 특강 내내 지치지 않고 성공 노하우를 가르쳤다. 그는 “모든 사고방식을 여기(베트남) 기준으로 바꿔라”고 주문했고, “주변을 깨끗이 정돈하라”는 식의 아버지 같은 세심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인터뷰는 지난 23~25일 사흘간 YBM 교육 현장과 졸업생 취업 현장을 옮겨가며 몇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김 회장은 그중에서도 주(主) 인터뷰 장소로 하노이 대우호텔을 선택했다. 세계 경영 전성기 시절, 대우가 지녔던 이 호텔엔 베트남 국영기업에 넘어갔지만 ‘대우’란 이름은 건재했다.

◆돈이 더 있으면 더 뭘을 텐데...  
- 14년 만의 언론 인터뷰다. 왜 이제야 나오셨나.  
“예전에 하도 오랫동안 일만 하다 보니 건강에 등한했다. 대우 졸업 후 30년 이상을 건강 체크도 안 하고 다녔다. (2005년에) 귀국해서 큰 수술을 많이 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



베트남 하노이에서 본지 박정훈(왼쪽) 부국장과 TV조선 김미선(오른쪽) 앵커와 대담 중인 김우중 전 대우 회장.

**김우중 사관학교** 왜 하나  
**중국·이스라엘을 봐라**  
**땅 좁은 우리나라도 이틀치런**  
**밖에 나가 서로 돕고 투자해야**

이다. 그래서 그때는 건강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다. 이전 건강이 예전의 80% 정도는 회복해서(활동을 재개한 것이다)... 주치의의 말로는 나처럼 빨리 회복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 체류지로 베트남을 선택한 이유는?  
“의사가 더운 곳에서 회복하는 게 빠르겠다고 권했다. 내가 젊을 때 이 곳에 일찍 진출했다. (베트남) 정부도 투자하는 과정에서 잘해왔다. 그래서 이곳이 편안하다.”

- YBM은 무슨 프로그램인가.  
“밖에 나가 기회를 찾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운명적으로 땅이 좁다. 내가 세계를 돌아다 보니 중국 화교들이 미국이고 유럽 도시 어딜 가더라도 다 있어서 그 사람들이 힘을 합쳐 서로 도와준다. 전 세계 있는 중국집(음식점)을 가도 만원이다. 이스라엘 연구가 600만명 된다는데, 밖에는 두 배 세 배 나와있다.”

- 왜 이 사업에 승부를 걸었나.  
“재작년까지는 내가 죽을 때까지 무일 할까를 별로 생각 안 했다. 그

**후진 양성기 '제2의 세계경영'**  
**옛 대우 임직원들이 내는 회비로**  
**한 해 40명 안팎 연수생 가르쳐**  
**돈 더 있으면 1000명도 할텐데...**

러다 (작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해 보니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공헌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3년 전에 이 구상을 확정했고, 1년간 준비 과정을 거쳤다. 생각했던 것보다 성공해 자신감이 생겼다. 원래는 (올 연말) 2기를 졸업시켜 놓고 알려줘 했는데, 청년 실업 문제도 있고, 대략이대 KOTRA 할 것 없이 전부 다 (청년 해외 취업 프로그램)을 하는 걸 보고 공개해도 된다 싶었다.”

- 어떤 점에서 성공이라고 자랑하냐?  
“100% 만족하지 않지만 (17기) 졸업생이 100% 취직했다. 첫 연봉도 생각보다 높게 받았다. 현지 기업들이 (YBM 졸업생들) 인터뷰해 보고, 가치가 있으니까 채용한 거다. 자기들 신입 사원도 서울에서 왔는데 눈빛부터 행동까지 우리 연수생이 확실하더라고 한다.”

- 전액 무료인데 비용 부담은?  
“돈이 있으면 더 많지만, 100명도 100명도 가르쳐야만 돈이 있다. 대우 임직원이 모인 대우세계경영연

구원 회의가 3000~4000명 된다. 이들이 1년에 10만원씩 회비 낸다. (결린 회비로) 1년에 40명 안팎을 가르칠 수 있는 선에서 운영한다.”

◆화교 네트워크에 대항한다  
- 왜 국가가 아니고 해외인가.  
“우리나라는 운명적으로 많이 밖에 나가야 한다. 한국 사람은 유대인이나 중국인과 맞붙어서 이걸 정도로 우수하다. 못이놓고 나가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500명을 키워다 치자, 혼자 하면 리스크가 있다.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도와주며 투자한다. 우리도 (YBM) 동기들끼리, 회원들끼리 같이 투자하는 식으로 운영하면 화상(華商)과도 경쟁할 수 있다. 우리 연수생들이 (성장해) 중견 기업가가 되면 서로 투자하면 된다. 리카싱(李嘉誠·홍콩의 부동산 재벌)이 세계 최고 부자라는데, 그는 돈 많은 거 외에도 (중국에) 투자한 것도 엄청 많다. 서로 투자하고 공생하는 거다.”

- 회장님 본인은 이제 못 하나, 후진을 양성해 대신 '제2의 세계경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건가.  
“YBM 청년들에게 사업을 하더라도 여기를 베이스로 해서 하라고 한다. 본사가 어디고 와야 한다는 거다. 남자가 여자와 간에, 여자가 뿌리를 내려 결혼도 여자가 하고 죽을 때까지 산다는 생각을 하라는 거다.”

- YBM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우리나라는 (글로벌) 중견기업 역할이 중요하다. 연간 매출 200억달러, 300억달러 하는 기업도 많이 나와야 한다. 만약 500개 정도는, 200개가 성공했다고 하자, 본사를 여기로 하고, 한국에 투자하고, 싱가포르에서 기업 공개하고... 그런 식으로 가면 커지지 않겠다.” **A3면 계속**

**KU** 건국대학교  
KONKUK UNIVERSITY

## 인재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PRIDE KU**

건국대 '아시아 100대 대학 진입' - 사립대 9위  
(중앙일보·영국 THE 평가)

건국대 '세계대학 우수논문평가' - 아시아 97위  
(2013 라이벌 랭킹)

▶ 로저 클버그 건국대 석학교수  
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  
건국대 연구원과 KU글로벌 연구실 운영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이 걸어온 길**

1936년	대구생
1956년	경고등학교 졸업
1960년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1960~66년	한성실업 근무
1967년	대우실업 창업(자본금 500만원)
1978~81년	4년간 국내 수출 1위, 창업 이후 1998년까지 32년간 누적 1199억 달러 수출

## 김우중, 대우 해체 이후 14년간 어떻게 살았나

### 68개월 유랑·수차례 큰 수술... 사면 후 베트남 체류 추징금 18兆 선고받아 국내서 사업 再起는 불가능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의 동선(動線)은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었다. 간간히 신병 치료자 국내에 들어올 때마다 근거 없는 재기설(再起說)이 나돌 뿐이었다.

김 회장이 은둔한 이유는 무엇보다 건강 때문이었다. 그는 대우그룹 해체 이후 1999년 10월 중국으로 출국해 5년 8개월 동안 독일·프랑스·수단·베트남·중국 등지에서 유랑 생활을 했다. 2005년 귀국해 재판을 받을 때 링거를 맞으며 병정에 머물렀다. 2000년과 2002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병원에서 장렬치 수술, 2005년 한국에서 심장 수술과 뇌출혈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2007년 사면 이후 베트남 하노이에서 체류해왔다.

김 회장은 건강 문제에 대해 “나 자신과 싸워야겠다”고 표현했다. 건강을 회복했다는 의미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하노이와 호찌민을 오가며

글로벌 청년사업가(YBM) 1기 졸업생과 대우 출신 현지 사업가들을 만나며 지낸다. 김용원 전 대우경제연구소 회장은 “일이 없으면 못 견디는 체질인 김우중 회장은 YBM 사업을 통해 할 일을 찾았고 건강이 좋아진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또 중국·싱가포르·미얀마·홍콩 등지에서 예전에 사귀던 현지 전·현직 정·관계 실력자들을 만났다고 한다.

시간이 아까워 골프를 치지 않는다면 그는 해외 유랑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위해 골프를 시작했다. 오전 5시에 일어나 9홀을 돌며 골프를 치는데, 공이 그리에 올라가면 퍼팅을 하지 않는다. 그는 “퍼팅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리고 2007년 사면 이후 베트남 하노이에서 체류해왔다.”

김 회장은 2006년 추징금 18조원을 선고받았고, 따라서 본인 명의 재산은 없다. 소득이 생기는 쪽쪽 말류 담하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사업 재건

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20조원 분식 회계 책임을 지고 있기도 하다. 다만 부인 정희자(73) 서울아산전체센터 관장과 사업을 하는 두 아들(선형·선용씨), 그리고 이수화학 강성범 회장의 부인인 딸(선정자·48) 등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현재 하노이 외곽의 외국인 많이 사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한 측근은 “김 회장이 많이 들어오는 수입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세계 곳곳의 대우멘들은 김 회장에겐 큰 힘이 되고 있다. 대우 해체 후 14년이 지난 지금도 이들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조선일보) 박정훈 부국장, 호경업 선임부 차장, 오현호 사인부 기자 (TV조선) 손형기 PD, 유하림 경제담당 부장, 김미선 앵커, 신철기 카메라 기자

### 건국대학교 2013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대학원	원서접수	문의	대학원	원서접수	문의
일반대학원	서울 5. 6(월)~5. 16(목) 글로벌 5. 13(월)~5. 27(월)	서울 (02) 450-3263~4 글로벌 (043) 840-3232~5	산업대학원	5. 13(월)~5. 22(수)	(02) 450-3292
간혹전문대학원	5. 13(월)~5. 20(월)	(02) 450-3287	농축대학원	5. 20(월)~5. 31(금)	(02) 450-3312
경영전문대학원	1차) 5. 20(월)~6. 7(금) 2차) 6. 24(월)~7. 5(금)	(02) 450-0505	연료화학대학원	특별전형 5. 11(수)~5. 16(목) 일반전형 5. 27(월)~6. 7(금)	(02) 450-3276~7
행정대학원	5. 13(월)~5. 24(금)	(02) 450-3271~2	정보통신대학원	5. 13(월)~5. 27(금)	(02) 450-3561~2
교육대학원	서울 5. 20(월)~5. 30(목) 글로벌 5. 20(월)~5. 31(금)	서울 (02) 450-3282~3 글로벌 (043) 840-3232~5	디자인대학원	5. 6(월)~5. 20(월)	(02) 450-3306~7
			부동산대학원	5. 9(목)~5. 15(수)	(02) 450-3316~7
			사회과학대학원	글로벌 5. 13(월)~5. 27(월)	(043) 840-3232~5

**ch19 TV조선 투데이** 제보 전화 (02)2180-1000, 이메일 tvnews@chosun.com, 트위터 @tvchosunnews

**TV조선 뉴스9** 오전 8시 30분 **들어온 저력수다** 오후 3시 40분 **박찬희·정혜진의 원형리포트** 오후 5시 40분

안철수발(發) 정계 개편의 가능성은? 김경호 전 안철수 대선캠프 기획팀장과 박재경 전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이 진단한다. 4·24 재보선에서 당선된 이원구 의원이 출연, 향후 행보를 소개한다.

유쾌하고 통쾌하게 모든 것에도 전하는 프로그램, 장원재 'SNS 바른소리와 사람들' 대표, 진성호 전 의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가 개성 공단을 둘러싼 진실을 논한다.

김문수(사진) 경기도지사가 출연, 위키 속의 한국 경제가 투자유치를 통해 어떻게 활력을 되찾을지 조연한다.







# 베트남은 시작, 미얀마·인도네시아까지 넓혀갈 것

A2면에서 계속

▶ -YBM을 베트남에서만 하는 거 아니죠?

“내년에 미얀마에서도 시작하고 인도네시아까지 갈 생각이다. 우리나라는 아세안(ASEAN) 나라가 제일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미얀마·베트남·인도네시아가 제일 크다. 땅이나 인구, 머리 면에서 (새 나라가) 제일 중요하다. 무지할 때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한 50년간 가장 빨리 커질 수 있는 나라들이다.”

-아세안 중에 왜 미얀마인가.

“(다른 경쟁자보다) 먼저 들어가야 (성공하기) 좋다. (옛 대우도) 항상 (신용 시정)에 처음 들어갔다. 미얀마는 시장 개방을 한 지 얼마 안 된다. 우리로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사람을 고용하고, 외화를 벌여 주는 수출이 중요하다. 미얀마는 땅이 크니까 식량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앞으로 미얀마에선 한국의 농과대학 출신을 뽑아서 보내 가르칠 예정이다. 고무나무 같은 사업 말이다.”

▶ 아버지처럼 자상하게  
-고급 노후유를 전수해주는 ‘김우중 사관학교’를 만든 셈인데.

“내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쉽다. (YBM 청년들이) 15년 안에 창업하기를 기대한다. (청년들이) 자신이 생기는 편이지 할 수 있다. 백화점에서 파는 모든 물건을 다 할 수 있다. -교육이 스파르타식으로 강행군이 라던데.

“제일 문제는 요즘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편하게) 자랐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해서 일을 해내도록 해야 한다. 그게 제일 어렵다. 아침 5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훈련한다. 이렇게 10개월간 공부시킨다. 이걸 따오라, 배겨내라는 거다.”



지난 24일 베트남 하노이사범대학에서 특강을 마친 김우중 전 회장(한국에서 온 청년 연수생들과 함께 강의실을 나오고 있다. 세계시장을 섭렵했던 황년의 비즈니스 기인을 청년들은 마치 아버지를 대하듯 웃고 떠들며 워치처럼 배운다. 하노이·모용진 기자

**동남아에 ‘김우중 사관학교’**  
베트남 1기 졸업생 100% 취업  
내년엔 땅 넓은 미얀마에서  
한국 농과대 출신 가르치겠다

**왜 스파르타식 교육인가**  
요즘 젊은이들 편하게 자라  
혹독한 프로그램 배겨내야

**김우중의 꿈은...**  
교육 받은 청년들이 15년 후  
세계에서 성공한 모습 보고싶어

-정리 정돈을 특히 강조하신다고 들었는데.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정리 정돈을 잘하는데 오히려 여자들이 문제다.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내 방에 와서 보라고 한다. 어떻게 돼 있는지 말이다. 공장이 자기 집보다 깨끗하게 한다. 나는 (대우 시절) 공장을 인수

한 뒤 리노베이션하고 이발소까지 만들었다. 지저분한 마리로 일하면 흐트러진다. 창고 정리 못하면 가맹성 없는 회사다. 투자가 많이 하는 것도 다 청소 잘하는 공장이 성공한다.”  
-아버지가 자식 대하듯 자상하게 신경 쓴다고 하는데.

“교육생들을 한 달에 4번은 만난다. 학생들 잡자리가 편해야 하는데 이불 흘림도 내가 직접 끝냈다. (대학 기숙사에) 뜨거운 물이 안 나와 샤워 시설을 마련했다. 신발장도 만들어 1인당 한 칸씩 5열짜리 놓도록 해주었다.”

-이들을 채용한 현지 기업 반응은?

“이곳 기업들은 (YBM 졸업생들) 현지 직원 채용이 아니라 본사 직원 대우로 뽑는다. 해외 수당까지 주고, 서울에서 온 직원과 똑같이 해주겠다. 한국에서 온 사람과 같지만 안 가도록 하겠다는 거다.”

-요즘 청년들은 삶의 조건을 따지는 데 여기까지 와야 할 절박한 이유는...  
“월급 올라가는 것을 보면 한국보

다 여기가 훨씬 낫다. 10년 지나면 (한국에서 취업하는 사람들) 완전히 안도할 것이다. (청년들이) 사정을 알면 다 온다. 여기 있는 베트남 로컬 업체에도 취업할 수 있고, 베트남 관청이나 은행도 갈 수 있다. 곳곳에 깔려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서로 돕고 하면 (창업 성공)의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다.”

▶ 인생을 걸었다  
-결국 나라 전체가 밖으로 뻗어나가야 한다는 얘기인가.

“지도자들이 어떻게 잘하느냐에 달려있다. 앞으로 지역주의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아시아 경제권 구축이 중요한데, 중국도 일본도 우리의 손잡고 손을 벌려오는 국가가 돼야 한다. 그러려면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해외에서 힘을 가져야 한다. 세계시장에서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한국 경제 네트워크를 누구도 무시하지 않고 서로 손을 잡아가 할 것이다.”

-사업 재기가 아니고 교육에 승부를 걸겠다는데...

“이거 해서 (YBM 졸업생들이) 15년 후에 독립했다든지, 중역이 되는 것을 보고 싶다. 그러면 (나의) 흔적

이 남는 것이다. (YBM 사업이) 20년 후 엄청난 거 커져서 흔적을 남길 수 있다. 김우중이란 사람이 살았는데, 실수해서 그렇게 됐지만 (대우그룹 해체를 뜻하는 듯)... 사람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살았다) 흔적을 남기야 한다. (대우 해체에 대해)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다.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YBM 사업을 통해) 김우중이 이렇게 할 수 있구나를 보여주고 싶다.”

-한국 사회로부터 재평가를 받고 싶은 건가.

“(청년 사업가들이) 자라나는 것

을 보면 얼마나 좋은가.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가야 한다.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니까 기본으로 모델을 만들어 놓자는 생각이야. 나는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지 않았다. 나라를 위해 한창 일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돈이 생겼다. 개인적으로 돈 쓴 게 없다. 우리 세대는 ‘희생의 세대’다. 태어나 죽을 때까지 말이다. 나라를 위해 살았다고 해주면 제일 좋다. 일만 되게 난 그렇게 살았다. 지금은 (글로벌 YBM을) 시작했으니 내 꿈이 실현되도록 구십 살, 백 살까지 내 인생을 걸겠다.”

1980년	사재 출연 대우재단 설립
1984년	국제상공회의소 국제기업인상 수상
1988~92년	대한축구협회 회장
1989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출간 (총 23개 연어, 26개판)
1998~99년	전경련 회장
1998년 말	국내 계열사 41개사, 해외 법인 396개사, 국내 종업원 10만5000명, 해외사업장 외국인 종업원 21만9000명
1999년	대우그룹 워크아웃
1979년	수출탑 수상

‘김우중 사관학교’ YBM 베트남 연수생들의 생활은

## 새벽 5시30분 기상... 점호·음주규제 등 규율 엄격 베트남語·금융·무역 등 하루 9시간씩 10개월 공부

새벽 5시 30분 베트남 하노이 국립 사범대학의 외국인 기숙사동 4·5층에 불이 켜졌다. 4인 1실의 방마다 체육복으로 갈아입은 20대 남성 청년들이 눈을 비비며 나와 기숙사 앞 공터에 모였다. 체조를 끝낸 후 ‘하나’ ‘둘’ 구령 소리를 내며 구보를 시작했다. 대학 주변을 두 바퀴 도는 2.5km 코스다.

이 대학에서 YBM 연수생들은 ‘김우중 사관학교’로 불린다. 섬세 30도를 넘는 날씨에도 아침마다 구보하고 눈을 비비며 꾸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현지인들이 붙여준 이름이다.

10개월의 교육과정은 절반 이상이 베트남어 공부이고, 이의 비즈니스 영어와 회계·금융·무역 등의 실무 배운다. 수업·자습 등 공부하는 시간을 합치면 하루 평균 9시간에 달한다. 하루 세 끼는 현지식이다. 아침에 쌀국수, 점심·저녁은 ‘콤(COM)’이라고 부르는데 현지식 백반이다. 군대에서나 볼 법한 점호(點呼)도 있다. 밤 10시 기숙사 앞에서 하루 일과를 정리하는 점호를 끝내고 11시 반까지 베트남어로 일기를 쓴다. 김호범 글로벌 YBM 교육담당장은 “인내하고 절이 있는 생활을 습관화하자라는 것 김우중 회장의 뜻”이라고 말했다.

생활 규율도 엄격해서 술은 1주일에 딱 두 2번으로 정해져 있다. 한 캔을 더 마실 때마다 5점의 벌점이 매겨진다. 아침 구보에 이유 없이 빠지면 5점, 지각은 3점이다. 이런 식으로 벌점 100점을 넘기면 퇴소당하고 귀국해야 한다.

학생들은 모두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3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돼 새로운 기회를 찾아온 젊은이들이다. 연수생들은 이구동성으로 “해외에서 꿈을 찾기 위해 왔지만 그렇다고 나를 친구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꿈을 잃어버린 게 아니다. 꿈은 있는데 그 꿈을 펼칠 공간이 없었다”는 말도 나왔다.

한세대 장애인보조기기 학과를 나온 김승은씨는 “젊은이들이 대기업 취업을 1순위로 잡고 이를 위해 토의를 공부하고 스펙을 쌓는 현실이 답답했다”고 말했다.

연수생 중에는 박은숙·진갑 남매도 있어 있다. 동생 진갑씨는 아주대 건축공학과 재학 시절 모바일 관련 창업에 했던 사업가였다. 이 남매는 앞으로 베트남에서 IT 관련 사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경북의대를 나온 김대희씨의 꿈은

### 글로벌 청년사업가 (Global Young Business Manager) 프로그램

한국 청년들이 베트남 등 해외로 가서 취업·창업할 수 있도록 현지어와 비즈니스 실무를 1년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과정. 김우중 회장 주도로 대우세계경영연구회에서 비용을 부담하며 주관한다. 작년 배출된 1기 졸업생 33명은 전원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에 취업했다. 또 현재 2기 연수생 39명이 국립 하노이사범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연수생과 졸업생에게는 대우그룹 전직 임원들이 일일이 멘토(mentor)로 붙여 조언해준다. 베트남에 이어 내년엔 미얀마에도 연수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개도국에서 정화초·빈기 관련 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종교자 매대 사업에 관심이 있는 김준원씨는 이미 남태평양 바누아투에서 종교자 무역을 해본 경험이 있다.

작년 말 졸업한 1기생 33명은 100% 현지 기업에 취직했다. 장갑 제조업체 테하이비나에 취직한 김보원씨는 “단체 생활을 하며 앞으로 사업가로서의 삶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인터리어업체인 ‘온민’에 취직한 고진씨는 김우중 회장실에서 “도전”을, 고진씨는 “열정”을 배웠다고 했다.

www.songpaipark.co.kr

HDC 현대산업개발

# 송파 IPARK 임대수익 2년 보장!

시대가 변화면 투자의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2%대로 가라앉은 금융상품에서 눈을 돌려 KTX 수서역, 문정법보타운 등의 발전호재로 가득한 송파 아이파크의 2년간의 임대수익보장을 주목하십시오!

## 초저금리 시대 최고의 투자상품 - 송파 아이파크

가파른 임대사업

문정법보타운 송파구청 예정지

KTX수서역복합센터 (2015년 완공예정)

1km 산책로

25,000㎡ 스탠드마켓

이마트

김스클럽

백화점

CGV

2년간 임대료 지급 보장!  
전용 25/29㎡ 월 최고 97.5만원 까지 (2년간 총 2,340만원)

취득세 면제 혜택  
주목업대사업자 등록절차대행서비스

선착순 동호수 지정  
3.3㎡ 당분양가 1,100만원 부터

임주만을 위한 최고급 커뮤니티  
국내최고급수준의 피트니스클럽, 키즈카페

총 1,403실  
개발면적 25만㎡ 59만㎡

모텔하우스 : 잠실아사미션스퀘어점 인근 전세 2년  
네비게이션 : 서울역 송파구 잠실동 1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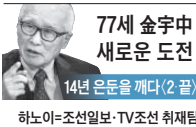
방문의 1899-3999

TV 조선에서  
영상 수 있습니다

분방송: 뉴스쇼 판 오픈 저녁 9시40분  
재방송: 시사토크 판 5월1일 오전 7시50분



# “北은 예측불허라 사업하기 힘들더라... 남포공단도 그래서 접은 것”



77세 金宇中 새로운 도전

14년 은둔을 깨다 (2/3)

하노이=조선일보·TV조선 취재팀

## 실패로 돌아간 남포공단 대북 사업

1992년

김우중 회장 방북, 김일성 주석과 만남. 평남 남포항에 100만㎡(30만평) 규모 경제공업단지 조성 합의. 중장기적으로 650만㎡(200만평)에 TV·냉장고 공장 건설 계획.

1995년

정부, 대우의 500만달러 대북 투자 승인.

1996년

남포공단 정식 기동 계획과 달리 2만6000㎡(7900평)에 와이셔츠·신발·화장 등 3개 공장.

1997년

남포공단 기동용 안락 해를 위해 김우중 회장 방북.

1999년

대우그룹 투자 중단.



평안남도 평안시 남포항 남포공단

지금 파행을 겪는 개성공단보다 8년 앞서 북한에 정단을 만든 것이 김우중(金宇中·77) 전 대우그룹 회장이다. 김 회장은 1996년 북한과 합작으로 평양 인근 남포에 경제공업 공단을 세웠다. 그러나 남포공단은 3년 만에 문을 닫아 단명(短命)에 그치고 말았다. 당시 남포공단의 폐쇄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우그룹이 해체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유력하다. IMF 사태만 아니었다면 대우가 남포공단을 계속했을 것이란 분석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선일보·TV조선과 인터뷰에서 김 회장은 그동안 알려졌던 것과 다른 사실을 밝혔다. 김 회장은 “해보니 북한은 (합작 공단)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그 안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1998~1999년쯤 포기해버렸다”고 말했다. 막상 공단을 만들어 운영을 해보니 북한이 자기네 땅 안에서 자본주의 공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준비 자세와 마인

드가 부족하더라는 것이었다. 그는 “그때까지 큰돈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손해는 없었다. 북한에서의 사업은 힘들다는 경험을 얻었다.”고 말했다. 1992년 1월 김우중 회장은 계열사 사장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 당시 주석 김일성과 회담을 가졌다. 동남아와 아프리카·중동·중앙아시아에 집중노도처럼 진출한 김 회장에겐 북한은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시장”이었다. 김 회장과 김일성은 북한에 합작 공단을 조성해 일차적으로 섬유와 경공업 제품을 제조·수출한다는 데 합의했다.

공장 가동은 1996년부터 시작됐다. 대우와 북한의 삼천리총회사가 합작한 민족산업총회사가 그 주체였다. 대우는 여기에서 연간 셔츠·블라우스 310만벌, 제복 60만벌, 필트 등 스포츠 가방 95만개를 생산, 유럽·일본 등에 연간 2000만~3000만달러어치를 수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 회장은 분재·섬유뿐 아니라

남북經協 1호, 3년만에 실패 왜 “北근로자 3개월마다 바뀌고 기계부속품·자재 계속 없어져... 北, 자본주의 공장 수용하기엔 준비도 사업 마인드도 없었다”

개성공단 사태 어떻게 보나 “처음부터 실패할 확률 높아... 휴전선 인근 남한에 공장 세워 北근로자 출퇴근시켜야 승산”

전자 제품도 생산하는 등 남포공단을 대대적으로 키운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남포공단은 김 회장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은 남포항에서 인천 또는 부산항을 거쳐 유럽·남미 등으로 수출했지만 공장 가동률은 50%에도 못 미쳤다. 공장 내 고장·사고가 끊이지

않은 데다 남포항 선적(船積)도 원활하지 않아 남기가 못 맞추는 일이 잦아졌고, 그 결과 해외 바이어의 주문이 급감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남북 경협 1호 사업인 남포공단은 3년 만에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김 회장은 “남포항에서 선적 자체가 자주 발생했으면 발전이 같은 설비 등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에 있는 (대우) 공장에 북한 근로자들을 데리고 가서 훈련시켰던 효과는 비수였다”고 말했다. 게다가 당시 남포공단은 북한 근로자들이 3개월마다 교체됐는데 그때마다 근로자들이 기계 부속품·자재를 훔쳐서 갖고 나가는 사례가 속출했는데도 북한 당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지도 않았다고 대우측 관계자는 말했다. 북한이 경험에 응하기를 했지만 시스템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우가 남포공단을 포기하자 2000년 현재는 북한과 개성공단을 만들기 로 전격 합의했다. 현재는 개성공단

설립 합의에 앞서 1998년부터 공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당시 세계에서는 “김우중과 정주영의 대북 사업 주도권 경쟁에서 처음엔 김 회장이 앞섰다가 결국 정 회장이 독주하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김우중 회장이 대북 사업을 접자 대규모 남북 경협 사업을 벌이려던 김 대우 정부에 미온반이 박혔다는 해석이 일기도 했다.

개성공단 해법에 대해 묻자 김 회장은 지금 말할 임장이 아니라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그 안(북한 땅)에서 사업하는 건 힘들 것”이라고 했다. “현재처럼 북한 땅 안에서 공장 설비를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압록강 넘어 중국 땅이나 휴전선 인근 남한 땅에 공장 설비를 갖추고, 북한 근로자들을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해야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개성공단 사태처럼 북한의 정치·사회적 리스크로 말미암아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말이다.



하노이=조선일보·TV조선 취재팀 김우중 회장이 지난날 25일 베트남 하노이 대우호텔에서 조선일보·TV조선 인터뷰 도중 눈시울을 붉히며 눈물을 참고있다. 옛 대우위원장 겸 멤버들이 지난 12월 20일 만에 만나 노년연의 얘기가 나오자 김 회장의 감정이 폭발했다.

아직도 무거운 등산화들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350g의 가벼움에 안정성과 접지력까지 갖춘 다이나믹하이킹으로 등산화에 대한 생각을 갈아신다!

노스페이스 다이나믹하이킹

350g 초경량, X자 설계 이드솔, 미비전력(미비전력)이득

THE NORTH FACE NEVER STOP EXPLORING

## “대우 해체? 잘못된 것도, 억울할 것도 없다”

### 김우중 前 회장의 ‘悔恨’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은 IMF 외환 위기 이후 그룹 해체에 대한 진심은 끝내 밝히지 않았다.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하겠다”며 한시도 입을 닫았다. 그는 “(내가) 잘못된 것이 없다”며 대우 해체가 정부 정책의 오류라는 입장을 견지했으며 “억울할 것은 없다”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 김 회장을 사들여 결친 취재와 인터뷰에서 딱 한 번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들이 해체되며 고생한 대우 임직원과 가족들에 관한 대목이 나올 때 그는 감정이 북받치는지 눈가를 닦았다.

◇“대우 직원들에게 평생 빛이 있다” - 전직 대우맨들엔 불박한 부실기업의 직원이었다는 불명예 콤플렉스가 있을 것 같다. “난 모르지만... (대우 출신) 사람 대부분이 불명예로 생각하지는 않을 거다.” - 대우의 세계 경영이 좌초한 데 대해 아쉬웠던 점은 없다. “억울하거나 무엇을 잘못했다거나, 그런 거 없다. 난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도 없고, 최선을 다해서 평생을 다했다. 그걸로 만족해야지. 다만 직원을 시구들한테 미안하다. 이 사람들이 (자녀들) 대학 졸업시키고, 학비 대고 돈을 많이 쓰는 시기에 직장을 관했다. 재취직해서 간 사람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타격받은 사람들도 있다. 그럴 경우 원망도 있을 거다. 그걸 언젠간 풀어줘야 한다.” - 어떻게 풀어야 하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대우 직원들에게 진) 빚을 지고 가야 할 것 같다.” - 과거 직원들은 자주 만나. “(조직에) 어른이 한 명 있어서 방향 잡아주고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힘들다. 제일 마지막으로 입사(98년) 그룹 공채 입사한 친구들이 ‘밤 한 번 먹자’는 제안이 왔다. 난 지금은 바쁘지만 곧 연락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 입사 순으로 시간 있을 때마다 밤 한번 먹고 그렇게 할 수

대우그룹 해체 당시 규모 1998년 기준 기준

계열사 수: 9대우·대우지주·대우중공업 등 41개

직원 수: 국내 9만9036명, 해외 15만1177명

해외 법인 지사 수: 36개+13개=총 50개

수출액: 176억4000만달러 (수입 40억달러) 한국 수출총액의 13.3%

대우그룹 해체 이후 들어간 공적자금과 추정금액

30조원 (대우그룹 해체 이후 법원이 김우중에게 들어간 공적자금)

18조원 (추정액)

그들 해체와 세계경영 좌초엔 “고생한 대우 직원들에게 죽을 때까지 빛 지고 가야” 그룹해체 진실엔 끝내 침묵

김우중 재평가에 대해 “대우 사람들이 있는 한 대우 브랜드는 계속 살아있어 재평가? 국민은 알아줄 것”

있으면 좋겠다.” - 작년 12월 서울 힐튼호텔에서 회장님 회수(홍홍·77세)를 맞아 옛 대우위원장 멤버들이 다시 모여 공연을 했다고 들었다. “(목이 메며) 합창단을 보고 말이 안 좋았다. 임원들 가족도 와 있으니까.” - 해외 유망 시장 ‘국민이 나한테 차가 돼 돈을 풀었다’고 회한을 토로한 적이 있다. “(정색하며) 지금껏 나한테 욕하는 사람이 없고, (누구나) 만나면 존경한다고 말을 건네고 그랬다. 어떤 택시 운전사는 (나를 알아보고) 돈을 안 받는 경우도 있었다.” - 세계 경영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게(세계 경영) 있어서 (대우의 급성장)이 된 거다. 세계 경영은 문제가 없었다.” - 지금 돌이켜보면 세계 경영의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 “언젠가 얘기할 시간이 있을 거다.” ◇“선전 안 해도 국민은 알아줄 것” - 지금도 대우 브랜드는 많은 계열사에 남아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라져 갈 것이다.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고맙

다. 아마 전부 없지 않을 거다. 대우가 사라질 순 없다. 사라졌어도 어쩔 수 없는 거고... 하지만 대우 사람들이 있는 한 대우 브랜드는 생명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우’란 이름을 붙여서 하겠다고 생각 하면 안 될 게 없을 거다.” - 본인에 대한 재평가는 언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선전(宣傳)을 하고 안 하고 차이지... 나중에 국민들은 알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 다시 스무 살 청년이 된다면? “학교 가서 교수를 열심히 했을 것 같다. 아니면 우수한 검사, 제의로 판사가 됐을 것이다. 정부에 갔더라도 관할을 갖겠다. 하지만 정치는 할 생각이 없다. 제일 힘들다.” - 90년대 초 정치할 생각이 있었나? “정치가는 얼굴이 5개 있어야 한다. 기업가는 (정치하면) 안 된다. 원래부터 정치할 생각이 없었다.” - 마지막 한 말씀을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기 한다. 우리는 사람이 흩 퍼져나가 외국 가서 정관도 되고 유엔 사무총장도 할 수 있다. 국익을 위해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올수록 좋다. 지금 일자리가 없는데, 앞으로 살의 기간이 길어질 거다. 지금 20대는 아마 120세까지 살 거다. 50대가 100세까지 살고, 자기 인생 계획을 잘 짜야 한다. 2기의 인생, 3기의 인생 살아야 한다. 가정보도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들이 가정을 꾸려야 한다.”

(특별취재팀) (조선일보) 박정훈 부국장, 호경업 선임부장, 오종찬 멀티미디어 영상부 기자 (TV조선) 송현기 PD, 유희룡 경제담당 부장, 김미선 센터, 신원형 상취팀장 차장